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의 차이

김상욱*

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가 가지는 차이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경제 성장에 필요한 부족한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통계자료는 실물경제의 분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립에도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모두 여섯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첫째는 범위의 설정이다. 둘째는 실제투자자와 계약투자자의 차이이다. 계약투자자는 장기적인 투자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투자자는 당해 연도에 실제적으로 유입된 투자이다. 셋째는 신규투자자와 누계투자자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자는 제도적인 추적이 가능하지만 누계투자자에서의 재투자는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넷째는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자료의 차이이다. 이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가 상무부의 자료보다 더욱 과대평가되고 있다. 다섯째는 중앙과 지방의 통계자료의 차이이다. 통계자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여섯째는 투자이행국가와 투자대상국가의 통계자료의 차이이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al Data Difference in China

Sang-Wook Kim*

ABSTRACT

This paper analyze the differences and problems of FDI statistical data in China. The FDI not only provide the capital, but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quality development. The over-evaluated and under-evaluated FDI statistical data could bring about unfavorable affects to real economy analysis and policy-making process. This paper indicates the statistical data differences and analyzes the causes from sixth aspects. First is the fixing of statistical data boundary. Second is the difference of the actually used FDI and the contracted FDI data. The contracted FDI data indicate the investment intention and potential power. Third is the difference of the green filed investment and the accumulated investment. We could compute the green field investment from the institutional channel, but hardly computing the accumulated investment because of the re-investment. Fourth is the difference of MOC and SAOFE, this is the most serious problem. Fifth is the diffe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ixth is the difference of host country data and the investment country data.

Key Words : China, FDI, Statistical Data, Local Government

*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중국통상학과(☐jinxiangyu@pcu.ac.kr)

· 제1저자(First Author) : 김상욱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김상욱

· 접수일(2012년 7월 9일), 수정일(1차 : 2012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2012년 8월 20일)

I. 서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중국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개혁개방의 상징이면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中國統計年鑑 2011年』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중국이 유입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누계 금액(실제이용금액 기준)은 1조 483.8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0년도 전체 GDP의 17.69%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경제성장에서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도와 또한 중국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시경제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규모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업적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광범위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중국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중국의 통계자료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Wu, H. X.(2002)는 공업총생산액의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Wu, H. X.(2007)는 GDP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상욱(2009)은 중국의 통계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에 대해서 자료 구축의 배경과 현실과의 괴리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에 대한 연구는 특히 실증분석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이용하면 실증분석 자체의 검증도 객관성을 평가절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II. 문제 제기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를 IMF, World Bank, 중국국가통계국에서 발간하는 중국통계연감(China Statistical Yearbook)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만약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가 현실과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객관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국내에서는 袁曉虎(2000)가 일찍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오차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凌國平(2001), 高敏雪, 谷泓(2005)과 黃志勇(2006)은 외국의 통계기준과 중국의 통계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趙文秀(2004)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문제점을 통계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劉大勇(2007)과 高敏雪, 劉曉靜(2009a)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무부(商務部)와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하고 있으며, 高敏雪, 劉曉靜(2009b)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외자경제(外資經濟)의 중요한 구성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가 시계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중앙정부 부처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인직

접투자 통계자료의 이용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다. 본 연구의 문제점 제기는 향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I.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의 차이 비교

3.1 외국인 직접투자의 범위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간접투자는 주로 금융투자나 M&A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에 생산 관련 기계와 설비 또는 기타를 투자하는 형태이다.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鑑)의 해석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기업, 경제조직, 개인(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중국인이 다른 국가에 설립한 기업을 포함)이 국가의 관련 정책과 법규에 의거하여 현금, 실물, 기술(劉大勇(2007)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봄) 등을 이용하여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외국인독자기업(外商獨資企業), 중국 국내의 기업(企業) 또는 경제조직(經濟組織)과 공동으로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과 합작경영기업(合作經營企業) 또는 합작개발자원(合作開發資源)의 투자(외국인투자수익의 재투자), 정부 유관 부문의 비준을 받은 사업의 투자 총금액 중 기업이 해외로부터 유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홍콩, 마카오, 대만, 그리고 중국인에 외국에 설립한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할 것인가이다. 중국통계연감에 의하면 2010년 일 년 동안 중국이 유입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1,057억 달러 정도이다. 이 중 홍콩, 마카오, 대만의 기업이 투자한 비중은 60.24%이다. 그 중 홍콩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606억 달러 정도로 2010년 전체 투자의

57.28%를 차지하고 있다. 약 60% 정도가 홍콩의 중국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물론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 볼 때 홍콩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면 실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둘째는 현금투자는 계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지만 현물과 기술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이다. 중국통계연감에서는 현금, 실물, 기술 투자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특히 실물투자와 기술투자가 현금 가치로 환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에서 기술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기술의 가치가 현금 가치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 때 투자규모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셋째는 합자경영이나 합작경영 방식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부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高敏雪(2004), 劉大勇(2007), 高敏雪, 劉曉靜(2009a)은 상장회사 중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가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10%라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黃志勇, 2006). 합자나 합작의 형식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각각 지분의 비중을 설정한다. 그러나 지분의 비중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분의 비중에 상관없이 모두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하면 통계자료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지분의 비중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자료가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다.

3.2 실제투자와 계약투자의 차이

중국통계연감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이용외국인투자(合同利用外資, contracted foreign investment)과 실제사용외국인투자(實際使用外資, foreign investment

actually utilized)이다. 계약이용외국인투자는 투자계획서 상의 투자금액으로 투자지역의 투자 잠재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陳曉敏, 2005). 실제사용외국인투자는 당해 연도에 실제 진행된 투자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이용외국인투자금액이 실제사용외국인투자금액보다 규모가 더욱 크다. 왜냐하면 투자계획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통계연감에 의하면 1979년-2006년 동안(중국통계연감에서는 2007년-2010년의 계약이용외국인투자를 제공하지 않음) 중국의 체결한 계약이용외국인투자 총 금액은 1조 6,612.22억 달러이며 실제사용외국인투자 금액은 8,762.26억 달러이다. 즉 계약이용외국인투자금액의 52.73% 만이 실제로 투자로 이용된 것이다.

계약투자금액과 실제투자금액의 철저하지 못한 구분은 잘못된 정보를 양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4월 2일 이투데이(Etoday)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중국 서안시(西安市)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자본금 23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수 년 간 총 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10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제1기 공정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두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이투데이는 계약이용외국인투자액과 실제사용외국인투자액을 구분하고 있지만 중국청년보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통계자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자료 제공자와 이용자는 의도적으로 투자규모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외부적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23억 달러가 투자되지만 이를 70억 달러로 과대평가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 활성화에 중요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신규투자자와 누계투자자의 차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투자를 신규투자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누계투자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신규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새롭게 투자되는 부문을 말한다. 그리고 누계투자자는 연도별 신규투자자의 합계를 말한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경제성장 간의 실증분석에서 신규투자자와 누계투자자의 구분은 논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당해 연도의 투자가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이 이전 연도의 외국인직접투자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은 시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몇 년의 시차를 설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의의를 가지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누계투자를 이용하여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즉 매년 신규투자자의 누계를 고려할 경우 투자연한이 길어질수록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이 체감할 수도 있고 체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투자자와 누계투자자의 구분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재투자(re-investment)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연도에 창출한 이윤을 차기 연도에 재투자할 경우 이 부분은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시킨다. 문제는 재투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재투자에 대한 자료는 기업내부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확충되었는데 이 증가된 부분을 재투자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누계투자 통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문제는 바로 투자철수이다. 매년 증가하는 신규투자자는 통계자료 구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누계투자자를 신규투자자의 합계로만 해석하면 투자철수에 따른 투자금액의 감소는 고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철수를 감행할 경우에는 자본금이나

설비투자의 감소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陳錦銘, 李俊張華, 2008). 문제는 현재의 통계지표로는 투자철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3.4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차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계자료를 집계하는 채널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상무부(商務部)와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의 통계자료 차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1984년 국가통계국과 대외무역경제협력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용외자통계제도(利用外資統計制度)가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 통계제도는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2003년에는 상무부와 국가통계국이 공동으로 외상투자통계제도(外商投資統計制度)를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2003년의 기준에 의하고 있다.

표 1.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비교

Table 1. Comparison FDI data of MOC and SAOFE

연도	상무부 실제사용 외자	중국통계연감		국가외환 관리국비 금융부문 실제사용 직접투자
		실제사용 외자	비금융부문 실제사용직 접투자	
2005	724.06	638.05	603.25	734
2006	727.15	670.76	630.21	801
2007	835.21	783.39	747.68	1,418
2008	1,083.12	952.53	923.95	-
2009	940.65	918.04	900.33	1,059
2010	1,147.34	1,088.21	1,057.35	1,948

자료: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Korea: MOC)의 외자통계, 『中國統計年鑑2011年』,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SAOFE)의 『中國國際收支報告』 각 연도.

표1에 의하면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자료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사용외자금액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금융부문의 실제사용직접투자금액을 비교해 보아도 역시 큰 차이가 있다. 중국통계연감은 기본적으로 상무부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2010년 상무부의 자료를 이용한 비금융부문의 실제사용직접투자금액은 1,057.35억 달러이다. 그러나 국가외환관리국의 동일 지표는 1,948억 달러로 890.65억 달러의 차이가 있다. 이 규모는 상무부 자료의 84.23%에 달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과연 상무부의 자료가 더욱 현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가 더욱 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가 더욱 현실에 가까우면 상무부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현실보다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劉大勇(2007)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상무부의 통계자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채널을 이용하지만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을 이용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더욱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상무부의 통계자료는 각 지역에서 보고되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는 외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즉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5 중앙과 지방의 차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에 있어서 다섯 번째의 문제점은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자료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도덕적 해이이다. 지방정부의 관료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규모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와는 전혀 다른 통계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계약투자금액을 실제투자금액으로 보고할 수도 있으며 투자의향만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당해 연도의 투자로 확대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투자금액이 전혀 도착하지 않았는데 현물이나 무형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이를 투자금액에 합산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범할 수도 있다.

『中國統計年鑑2011年』에 의하면 2010년 말 산둥성(山東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금액은 1,245억 달러이고, 등록자본금은 729억 달러이고 그 중 외국인은 54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山東統計年鑑2011年』에 의하면 2010년 말 산둥성의 외국인계약투자금액은 1,770억 달러이고 실제이용외국인투자금액은 1,016억 달러이다. 등록자본금과 실제이용외국인투자금액이 비슷한 지표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287억 달러의 차이는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심을 하게 된다. 즉 하나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정부가 투자금액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해석을 과도하게 평가 절하시키는 경우이다. 논리적으로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거시경제안정을 위해 지나친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를 조정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6 투자이행국가와 투자대상국가의 차이

투자이행국가와 투자대상국가의 통계자료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송금이라는 국가 간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이행국가의 기업이 투자대상국가에 투자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투자이행국가와 투자대상국가의 외환관리부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정의하고 있듯이 외국인직접투자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실물이나 기술(또는 무형자산)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부문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 또한 이미 투자연한이 상당한 기업이 현지에서 창출된 이윤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이 부문은 외환관리부문에서 파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윤을 이용

하여 공장 부지를 확대하면서 이를 자본금 확충으로 신고하여 전체 투자금액을 증액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외환관리부문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상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473.03억 달러에 달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32.21억 달러이다. 차이가 140.82억 달러이다. 중국상무부의 투자통계가 더욱 큰 이유는 현지에서의 재투자도 신규투자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며 한국의 통계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중국에 직접적으로 이전되는 신규투자금액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투자이행국가와 투자대상국가의 통계자료의 차이는 국가 간 연구에서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실질적인 투자는 많지 않지만 투자대상국가에서 과도하게 통계자료가 구축되면 비대한 외자경제(外資經濟)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 국가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IV. 결론

통계자료의 차이는 연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통계자료 수집의 시스템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 통계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이용하면 일반적인 논리와 상반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 많이 이용하는 회귀분석은 자료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는 다른 자료들과 달리 연도별 변화가 지나치게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모두 6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통계자료가 가지는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통계자료 수집 기관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지라도 통계자료는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이다.

첫째는 통계자료의 출처와 배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계자료가 상무부의 자료인지 아니면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물론 범위의 설정이 가지는 한계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철수, 재투자 등 여러 형태의 동태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는 통계자료의 공간적 경계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대보고나 허위보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별 자료나 지역별 자료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여섯 가지 경우 이외에도 또 다른 복잡한 상황들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 구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통계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연구자세가 아니다. 문제는 통계자료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 통계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Wu, H. X., "How fast has Chinese industry grown?: measuring the real output of Chinese industry, 1949-97",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8, No.2, pp.179-204, 2002.
- [2] Wu, H. X., "The Chinese GDP growth rate puzzle: how fast has the Chinese economy grown", *Asian Economic Papers*, Vol.6, No.1, pp.1-23, 2007.
- [3] 김상욱, "중국 통계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중경상연구*, 제8집, 제2호, pp.5-40, 2009.
- [4] 袁曉虎, "外商直接投資統計誤差與遺漏的實証分析", *江蘇統計*, 第4期, pp.29-31, 2000.
- [5] 凌國平(2001), "歐盟外國直接投資統計研究", *上海大學學報(自然科學版)*, 第7卷, 增刊, pp.1-7, 2001.
- [6] 高敏雪, 谷泓, "外國直接投資統計基本定義剖析", *統計研究*, 第4期, pp.47-50, 2005.
- [7] 黃志勇, "外國直接投資統計中的國際準則剖析", *統計研究*, 第10期, pp.44-48, 2006.
- [8] 趙文秀, "關於現行外國直接投資統計管理的思考", *南京航空航天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卷, 第2期, pp.28-30, 2004.
- [9] 劉大勇, "完善非金融領域外商直接投資統計管理的思考", *濟南金融*, 第1期, pp.41-43, 2007.
- [10] 高敏雪, 劉曉靜, "官方統計不同來源的驗證與銜接", *統計研究*, 第26卷, 第9期, pp.3-7, 2009a.
- [11] 高敏雪, 劉曉靜, "中國外商投資存量估算及擴展分析", *經濟理論與經濟管理*, 第6期, pp.11-16, 2009b.
- [12] 高敏雪, *對外直接投資統計基礎讀本*,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2004.
- [13] 陳曉敏, "完善外商投資統計體系的重要意義", *開放湖*, 第9-10期合刊(總第98期), pp.62-63, 2005.
- [14] 陳錦銘, 李俊張華, "青島韓資企業撤資問題探析", *國際經濟合作*, 第5期, pp.48-50, 2008.

저자소개



김상욱(Sang-Wook Kim)

1996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199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2002년 南開大學校 大學院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2008년~현재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중국통상학 교수

※ 관심분야: 중국지역경제, 중국 IT산업, 지역문화